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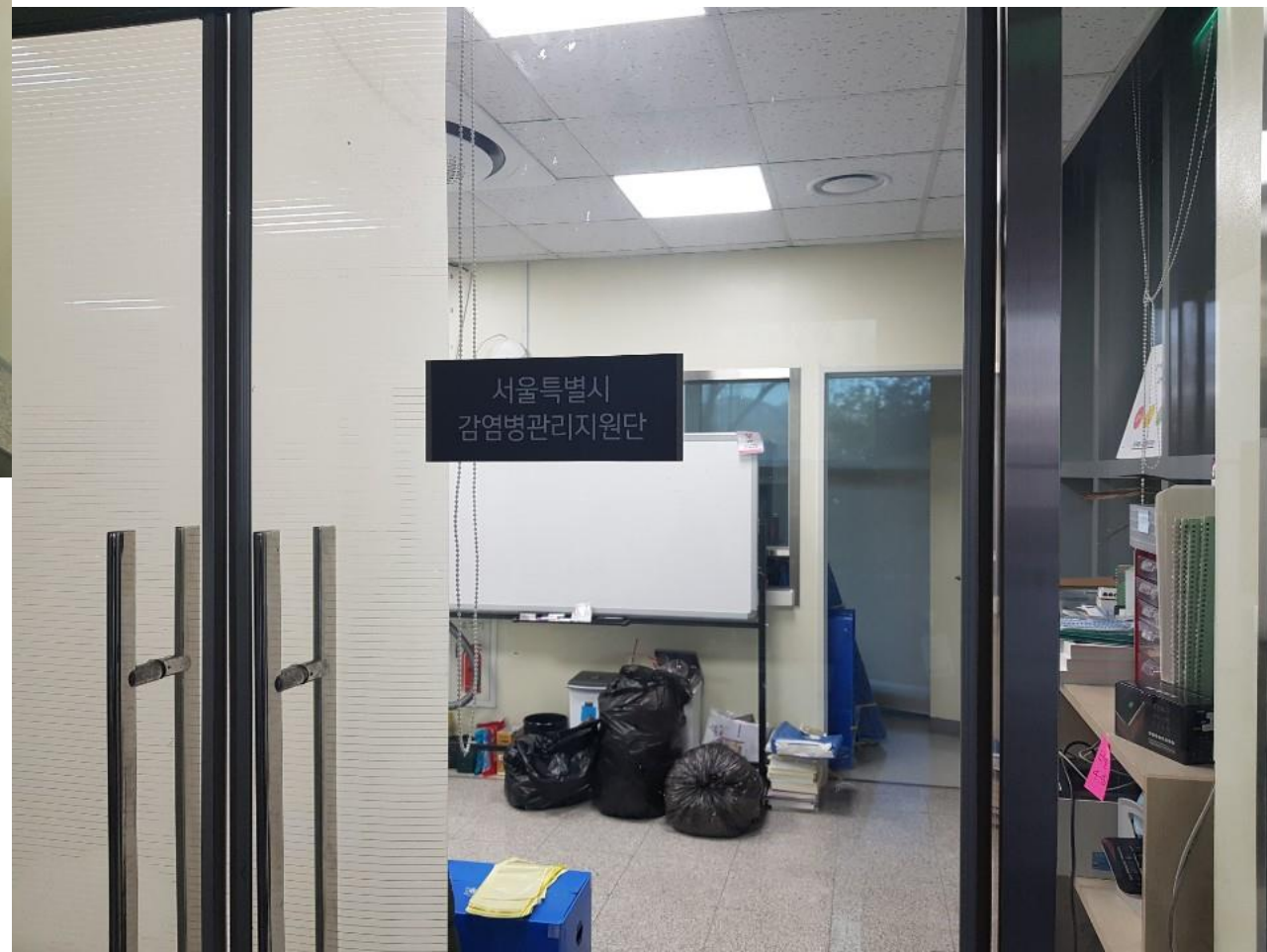
## 국가격리병동 현황

2011년 만들어진 병동이며  
병상은 10개이나 1인 1실, 음압장치,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각종 의료장비가 배치 되어 있습니다.

2014년 까지는 서울시의회에서 사용 실적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병원과 분리되어 있어 주목 받는 병동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10월 중순 필터공사를 이유로 폐쇄하였습니다.  
실제는 병상 운영이 적자라서 하지 않는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국격병동 안의 장비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 중환자실 현황

서울의료원 내 중환자실은 모두 3개 입니다.

현재 1개만 중환자실로 운영 중이며 나머지 2개는 창고와 당일병상으로 사용 중 입니다.

중환자실 내과 중환자실은 10개 병상, 신경계 중환자실 10개 병상, 외과 중환자실은 11개 병상이며, 현재 사용 중인 곳은 신경계 중환자실 뿐이며 외과 중환자실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